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

Internet Use Motivations and Problem Behavior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and Family System Type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석 사 신 수 정*
교 수 장 윤 옥**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Master : Shin, Soo-Jung

Professor : Jang, Yoon-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internet use motivations and problem behaviors among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and family system type. Five hundr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from Daegu took part in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survey consisted of an internet addiction self-assessment scale, a family system type scale, an internet use motivation scale, and a problem behavior scale. The data was analysed using MANOVA and Cronbach α , and the Scheffé test was used for post-hoc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 internet use motivation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s in the high dangerous user group showed higher communicative, experiential, and addictive motivations than adolescents in potentially dangerous and normal user groups. Also,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formative motivation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Regardless of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s tend to use the internet to search for information and to solve problem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More specifically, adolescents who were in the high dangerous user group displayed more problem behaviors toward their body, family, school, and society than adolescents in the potentially dangerous and the normal user groups.

Third, an adolescent's family system type significantly influenced his/her internet use motivation. Adolescents from an extreme family showed higher communicative and addictive motivations than adolescents from middle and balanced familie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oblem behaviors of adolescents according to family system types. Adolescents from an extreme family showed more problem behaviors toward their body, family, school, and society than adolescents from middle and balanced families.

▲주요어(Key Words) :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가족체계유형(family system type),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 인터넷 사용동기(internet use motivations)

* 주 저 자 : 신수정 (E-mail : madtang@hanmail.net)

** 교신저자 : 장윤옥 (E-mail : yojang@mail.knu.ac.kr)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8년에는 국가정보화 부문 세계 22위 수준이었으나 2006년에는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렀고(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2006), 세계 1위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한국IDC, 2006).

이와 함께 작업의 효율성, 학업능력의 증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인터넷이 각광받고 있는 반면 폭력적인 게임, 음란채팅과 같은 인터넷 사용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국 남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는 40세미만 사용자의 인터넷 중독률이 12.6%인 것에 비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5.3%이며,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5). 또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인터넷으로 인해 대인관계와 학업에 있어 2.5배나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대전 전교조, 2006)고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집단 중에서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해경, 2001; 최정애, 2004; 하미경, 2005).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얻는 각종 정보들을 이들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이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게임 속에서 느끼는 흥분은 현실 속에서의 괴로움을 잊게 하고, 자신의 아바타와 레벨이 올라갈수록 자아성취감과 유능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과도한 학업이나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를 분출할 만한 마땅한 여가문화가 없는 현실에 놓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공간과 시간적 제약 없이 받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인터넷을 선호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학업이 부진하고, 가정 및 학교의 기대와 관심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상 공간인 인터넷에 보다 더 몰입하게 된다. 인문계 고등학생들보다 정규교과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을 마치는 시간이 더 빠른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고, 학업능력 및 진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기대가 더 낮다(이해경, 2001)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생들과는 다른 사용동기로 더 쉽게,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며, 점차 인터넷 사용에 대해 집착하게 되며, 금단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생들보다 인터넷 중독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며 이에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수면박탈, 친구의 감소, 학교생활의 소홀, 그리고 중요한 사회적 활동과 여가활동의 감소 등과 같은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문제를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Goldberg, 1996), 병리적 도박자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자신의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생활을 방해받게 된다(Young, 1998).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 거의 모든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인터넷 중독이라는 역기능적 증상은 모든 청소년이 아닌 일부 청소년에게서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사용동기에 있어 비중독 청소년과는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는 비중독 청소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각 생활영역의 문제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가정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으로 주체성을 확립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과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 안정을 바라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정체감이나 인성이 아직 불안정한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 가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강병구, 2004; 안석, 2000).

가정 내에서 지지와 애착, 원만한 유대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가족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게 된다. 이러한 대안들 중 인터넷은 너무나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은 가족에게서 얻지 못하는 만족을 인터넷을 통하여 얻고, 점차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기 위한 동기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에 대한 의존이 점차 높아져서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성 및 금단증상을 경험하고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유발한다(Brenner, 1997)고 한다.

기능적인 가족에 속한 청소년일수록 혼란과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고(김윤희, 1990),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며(주경옥, 2001), 심리적 안정이 높게 나타난다(이천숙, 1996). 반면에 역기능적 가족에 속한 청소년일수록 대인관계와 학업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Hoffman, 1987), 청소년기의 위기를 바람직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약물을 포함한 중독적 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김윤희, 1990)고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볼 때 가족체계의 기능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와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체계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이므로 어떠한 가족체계가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올바르게 이끌고, 문제행동의 발생을 줄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요인의 총체적 의미로 가족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는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와 문제행동을 살펴봄으로써 건전한 동기로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족체계 안에서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다른 청소년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인터넷 사용동기와 문제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인터넷 사용동기와 문제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과 청소년 인터넷 중독예방에 기능적인 가족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이끌기 위한 사회적 조명의 필요성을 보다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목적들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고위험, 잠재적 위험, 일반 사용자군)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소통동기, 정보동기, 경험동기, 중독동기)와 문제행동(신체적, 학교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균형가족, 중간가족, 극단가족)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와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인터넷 중독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을 처음과는 다르게 더 긴 시간 동안 사용하고, 더 자극적인 내용을 얻어야 만족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함을 느끼는 등 이로 인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인터넷 중독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임상심리학자 Young이 미국심리학회(APA)에서 인터넷 중독 척도를 발표(Young, 1996)하고 공식화되면서부터이다. Young (1996)은 인터넷 중독을 실제로 존재하는 행동장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상적인 실험을 통하여 병리적인 인터넷 사용자(pathological computer user)로 구분된 사람들은 유의미한 중독적인 행동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하여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고, 인터넷에 의존하여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며, 컴퓨터 사용을 절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웹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컴퓨터 앞에 장시간 머물러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Young, 1996). 그러나 인터넷 중독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이를 스스로 판단하기란 극히 어려워 심한 중독 상태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이정화, 2001).

한편 인터넷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TV, 라디오 등과 같은 기존 매스미디어와는 구별되는 상호작용성, 탈대중화, 비동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는 정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김지현, 2001), 이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선택 기회가 향상되어, 인터넷 사용자는 다양한 동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최정호 등, 1995).

인터넷 사용동기란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행동을 이끄는 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곽웅신, 2006), 지금까지 인터넷 사용동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매체, 광고, 마케팅, 경영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곽웅신,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문제가 대두된 이후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새로운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를 개발, 타당화 연구를 한 곽웅신(2006)은 인터넷 사용동기를 정보동기, 소통동기, 경험동기, 중독동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정보동기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구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소통동기는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동기는 인터넷을 통해 자극과 스티를 얻고 게임과 같은 지표로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의미하고, 중독동기는 인터넷을 통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단지 인터넷 사용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혜숙(2002)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욕구가 많아지면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광웅신(2006)은 중독동기가 높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일반 사용자들과는 달리 인터넷 중독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 및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정서적 적응을 비롯한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경험동기 및 소통동기가 높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중독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인터넷 중독의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이희경(2003)과 조양희(2004)는 현실도피동기가 게임 중독의 예언변인이라고 하고, 어기준(2000)은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현실도피의 낙원으로 여겨져 게임중독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즉 게임 중독 청소년들은 정보를 찾고 타인과의 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게임에 몰두하게 된다. 이것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점점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어 청소년의 역기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터넷 사용동기에 따른 인터넷 중독 증상이나 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을 통해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에는 차이가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동기가 있고, 이를 인터넷 중독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인터넷 사용동기가 인터넷 중독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터넷 중독에 따른 문제행동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통제력 상실, 내성 및 금단증상, 사회적 고립감, 부부간의 불화, 학업실패, 과도한 재정적 부채, 실직 등 다른 물질 의존적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이나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생활에서 명백한 방해물 줄 수 있다(Young, 1999)고 한다. 또 Brenner(1997)는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신적·정서적 발달과 정체성 확립에 장애를 경험하는 등 성인의 경우보다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위험의 소지가 높다고 하고, 김종범(2000)은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자존감과 높은 공격성과 우울성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처럼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지하는 연구들(류진아, 2004; 조춘범, 2001; Egger, 1996; Papacharissi & Rubin, 2000)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erer와 Bost(1997)는 텍사스 대학의 53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한 조사에서 인터넷 의존적 사용자의 98%가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 상에 머무르고, 1/3이상이 사회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며, 직장에서 상사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정화와 전명기(1995)는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은 두통, 수면부족, 집중력 저하, 업무 및 학업에서의 지장, 어깨의 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고, 손성원(2002), 안석(2000), 오희경(2003), 최향순(2003)도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문제와 가족, 학교,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들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기의 올바른 성장·발달과 건전한 생활영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전체로서의 가족이 기능하는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필요로 한다. 가족응집성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며, 그 수준에 따라 '유리', '연결', '속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적응성이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단계상 일어날 수 있는 긴장에 반응하여 가족체계가 권력구조, 역할 및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수준에 따라 '경직', '유통', '혼돈'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수연, 1998).

이와 마찬가지로 Olson 등(1983) 역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두 요인을 기초로 가족체계를 유형화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때는 가족 역기능 현상이 초래되고 두 차원 모두 중간 정도의 적당한 수준일 때 가족이 순기능을 보인다는 곡선적 개념을 주장한다.

그리고 응집성 및 적응성 모두 중간 수준을 보이는 가족체계유형을 '균형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중 어느 한 차원에서만 중간 수준을 보이는 가족체계유형을 '중간가족', 마지막으로 응집성 및 적응성 모두 양극단에 속하는 가족체계유형을 '극단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수연, 1998; 엄명용, 1997; 전귀연, 1994).

이 중 균형가족에 속한 청소년일수록 의사소통 능력과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만족감 등 전반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나는(김미혜, 2003)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의 청소년일수록 불안과 우울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한다(박선정, 2004). 특히 청소년기에 가족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하지 못해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 간에 갈등이 심한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대인관계상의 갈등 및 학업문제에 있어 부적응 행동을 나타낸다(Hoffman, 1987)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무 높은 가족적응성으로 가족체계가 혼돈에 빠져 있거나, 너무 낮은 가족응집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유리상태에 놓인 가족체계의 청소년의 경우, 가족구성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과 대화를 하거나,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소통동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너무 낮은 가족적응성으로 가족체계가 경직되어 있거나, 너무 높은 가족응집성으로 가족관계가 속박 상태에 놓인 가족체계의 청소년의 경우, 가족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김수연, 1998), 가족의 지나친 간섭과 기대로 인한 답답함과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색다르고 즐거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이시형, 2000) 경험동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회피, 도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이해경, 2001; Young, 1998),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에 대한 만족감을 얻으려 함으로써 결국 청소년의 인터넷에 대한 기대와 의존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이진영, 2002)는 연구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역기능적 가족체계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 등의 부정적 심리요인을 가지는 청소년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점차 인터넷에 집착하게 되는 중독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문제행동

가정의 교육적 기능약화, 지나친 경쟁과 긴장상태의 방치로 많은 고민과 불안을 가지게 되는 청소년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의존성과 독립성과의 심리적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와 좌절을 겪게 될 경우 가정, 학교 및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행동 또는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하미경, 2005). 즉 문제행동은 청소년이 가정, 학교, 기타 장면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한다(정유미, 1997).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개인의 문제나 병리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잘못된 상호관계의 산물이므로 체계의 변화를

통하여 개인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구성원의 부적응 행동은 '병든' 개인에게서 비롯된 내면적인 문제라기보다 역기능적인 가족체계나 관계에서 비롯된 산물로 본다.

서명희(2004)는 가족구성원간의 화합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남현미(1999)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Barber(1994)는 비행, 약물복용과 같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문제들은 유리된 가족과 관련이 있고 식이장애, 자살과 같은 내면적인 성향을 띠는 청소년 문제들은 속박된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한편 김선로(2003)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관계가 큰 청소년일수록 신체적 문제, 심리적 문제, 학업 및 수업활동에서의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로 비추어 보아 가족은 청소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이지만 역기능적 가족은 청소년의 건전하고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있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김윤희, 1990; 도수경, 1991; 박선정, 2004; 승연경, 2003; 전귀연, 1997)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5개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234명(46.8%), 여학생이 266명(53.2%)으로 1학년이 98명(19.6%), 2학년이 253명(50.6%), 3학년이 149명(29.3%)이다.

인터넷 사용시간의 경우 평일에는 1~3시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250명(5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시간 이하가 135명(27.0%), 5~7시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82명(16.4%)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에는 5시간 이하를 사용하는 학생이 318명(63.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10시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126명(2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장소로는 자기 집이 433명(86.6%), PC방이 55명(11.0%)이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90명(58.0%)으로 가장 많고, '조금 부정적이다'가 118명(23.6%), '조금 긍정적이다'가 47명(9.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류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211명(42.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하류층'이 166명(33.2%), '저소득층'이 79명(15.8%) 순이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학생	234	46.8
	여학생	266	53.2
학 년	고등학교 1학년	98	19.6
	고등학교 2학년	253	50.6
	고등학교 3학년	149	29.8
평일 인터넷 사용시간	1시간 이하	135	27.0
	1시간~3시간	250	50.0
	3시간~5시간	82	16.4
	5시간~7시간	27	5.4
	8시간 이상	6	1.2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	5시간 이하	318	27.0
	5시간~10시간	126	25.2
	10시간~15시간	38	7.6
	16시간 이상	18	3.6
인터넷 사용 시간대	새벽2시~오전8시	2	0.4
	오전8시~낮12시	18	3.6
	낮12시~오후7시	70	14.0
	저녁7시~밤11시	340	68.0
	밤11시~새벽2시	67	13.4
	무응답	3	0.6
인터넷 사용장소	자기 집	433	86.6
	학 교	9	1.8
	pc방	55	11.0
	친구 집	1	0.2
	기 타	2	0.4
인터넷에 대한 부모님 태도	매우 부정적이다	23	4.6
	조금 부정적이다	118	23.6
	보통이다	290	58.0
	조금 긍정적이다	47	9.4
	매우 긍정적이다	22	4.4
가정의 경제수준	상류층	11	2.2
	중상류층	30	6.0
	중류층	211	42.2
	중하류층	166	33.2
	저소득층	79	15.8
	무응답	3	0.6
아버지 직업	농림·어업	11	2.2
	자영업·서비스업	189	37.8
	생산직·기능직	161	32.2
	사무직	43	8.6
	전문직·행정관리직	8	1.6
	무직·전업주부	36	7.2
	기 타	13	2.6
	무응답	39	7.8
어머니 직업	농림·어업	8	1.6
	자영업·서비스업	185	37.0
	생산직·기능직	42	8.4
	사무직	40	8.0
	전문직·행정관리직	1	0.2
	무직·전업주부	189	37.8
	기 타	14	2.8
	무응답	21	4.2
전 체		500	100.0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3월 24일~26일에 걸쳐 대구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2007년 4월 2일~7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총 610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학급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배부·작성하도록 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 중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500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3. 측정도구

1) 인터넷 중독 척도

인터넷 중독 척도는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이 개발한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항상 그렇다'에 4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40문항을 요인분석하였고, 그 결과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의 분류와 일치하는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므로, 각 요인에 대한 명명도 일상생활장애, 금단, 긍정적 기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내성, 현실구분장애, 일탈행동으로 일치시켰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58.6%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중 일상생활장애는 약 11.3%를, 금단은 10.5%를, 긍정적 기대는 8.8%를,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은 8.1%를, 내성성은 7.8%를, 현실구분장애는 6.3%를, 일탈행동은 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수준은 한국형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검사(K-척도)의 분류기준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본 척도의 총점이 108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요인의 모든 점수가 각각 26점 이상, 18점 이상, 17점 이상에 속할 때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총점이 95점~107점이거나, 일상생활장애가 23점 이상이거나, 금단이 16점 이상이거나, 내성이 15점 이상인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사용자와 잠재적 위험 사용자에게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2) 가족체계유형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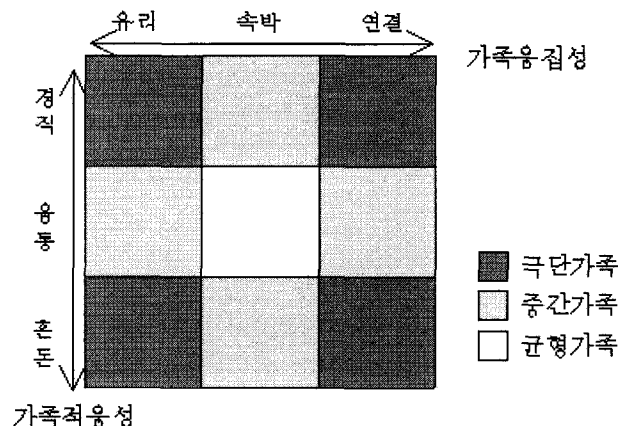
가족체계유형 척도는 Olson의 FACES II, III, IV를 종합한 김수연(199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응집성 척도 24문항과 가족적응성 척도 22문항의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응집성의 24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유리', '연결', '속박'으로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고, 24문항 중 내용상 관련이 적은 2문항을 제외한 22문항을 가족응집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의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유리가 .73, 연결이 .81, 속박이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적응성의 요인분석 결과 '혼돈', '유통', '경직'으로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고, 가족적응성의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혼돈이 .75, 유통이 .80, 경직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성 척도는 전체변량의 4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혼돈은 약 13.4%를, 유통은 16.7%를, 경직은 1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에서 '유리'문항의 총점이 '유리'문항의 평균(M=2.20)과 표준편차(SD=.68)를 합한 점수 이상인 경우 '유리'로 구분하고, '속박'문항의 총점이 '속박'문항의 평균(M=2.03)과 표준편차(SD=.49)를 합한 점수 이상인 경우 '속박'으로 구분하였다. '유리'와 '속박'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연결'로 구분하였다. 가족응집성 척도는 전체변량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유리는 전체변량의 약 12.5%를, 속박은 10.9%를, 연결은 1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성에서는 '혼돈'문항의 총점이 '혼돈'문항의 평균(M=2.39)과 표준편차(SD=.64)를 합한 점수 이상인 경우 '혼돈'으로 구분하고, '경직'문항의 총점이 '경직'문항의 평균(M=2.11)과 표준편차(SD=.54)를 합한 점수 이상인 경우 '경



<그림 1> 가족체계유형의 분류

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혼돈'과 '경직'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경우는 '유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을 교차하여 <그림 1>과 같이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였다.

3)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는 광웅신(2006)의 척도를 참고하여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47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중독동기, 요인 2는 경험동기, 요인 3은 소통동기, 요인 4는 정보동기로 명명하였으며, 47문항 중 내용상 관련이 적은 3문항을 제외한 44문항을 인터넷 사용동기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4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중독동기는 약 16.7%를, 경험동기는 15.1%를, 소통동기는 10.0%를, 정보동기는 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중독동기가 .87, 경험동기가 .92, 소통동기가 .87, 정보동기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문제행동 척도

문제행동 척도는 고성애(1998), 김영은(2004), 배영대(2000), 안석(2000)의 문제행동 척도와 Young척도(Young, 1996) 및 K-척도(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를 참고하여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32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가족영역 문제행동, 요인 2는 신체적 문제행동, 요인 3은 학교영역 문제행동, 요인 4는 사회영역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32문항 중 내용상 관련이 적은 3문항을 제외한 29문항을 문제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체변량의 4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족영역 문제행동은 약 14.3%를, 신체적 문제행동은 12.5%를, 학교영역 문제행동은 12.3%를, 사회영역 문제행동은 1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가족영역 문제행동이 .87, 신체적 문제행동이 .76, 학교영역 문제행동이 .81, 사회영역 문제행동이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인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

본 연구문제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한 인터넷 중독 척도의 점수로 III.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의 분류기준에 따라 본 연구대상자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본 연구대상자들을 인터넷 중독 수준이 가장 심각한 고위험 사용자군(N=17), 인터넷 과다 사용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N=82),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군(N=401)으로 분류하였다.

1)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인터넷 사용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F=22.607$, $p<.001$)는 통계

<표 2>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인터넷 중독	.714	22.607	8.000	988.000	.000

<표 3>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의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인변량 분석결과 (N=500)

인터넷중독	사용동기		소통동기		정보동기		경험동기		중독동기	
	M	SD	M	SD	M	SD	M	SD	M	SD
고위험 사용자군(17)	3.36 ^a	.67	3.39	1.01	3.50 ^a	.93	3.43 ^a	.56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82)	3.11 ^{ab}	.71	3.19	.69	2.71 ^b	.92	2.76 ^b	.66		
일반 사용자군(401)	2.69 ^b	.78	3.08	.78	2.11 ^c	.79	1.97 ^c	.60		
F값	14.832**		1.797		37.635***		95.224***			

p<.01, *p<.001

* a, b, c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의 하위 변인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소통동기, 경험동기, 중독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보다 소통동기가 더 높고, 고위험 사용자군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보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보다 경험동기와 중독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소통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부모-자녀 간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황정미, 2004), 친구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점차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되어(박영숙, 2002; 황상민·한규석, 1999), 결국 실제생활에서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가상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인터넷 사용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소통동기를 추구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경험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상에서는 모든 활동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정영숙, 2000), 현실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과 스틸·모험을 즐길 수 있으며(이정운, 2005), 게임 등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성취감과 쾌감을 만끽할 수 있다(조양희, 2004)는 연구결과들로 설명될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생들보다 학업능력 및 진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기대가 더 낮고,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낮은 성취감과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인터넷을 하는 동안 자유와 성취감, 쾌감을 경험함으로써 점차 처음의 자극보다 더 새롭고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험동기를 더 강하게 추구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중독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

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을 점점 더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학업저하 및 대인관계 문제(이선애, 2001; 임은미, 1999)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더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므로 이것을 해소하고 어려운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수단으로 또 다시 인터넷에 빠져드는 중독동기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정보동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터넷 중독 수준에 상관없이 정보동기에 의한 인터넷 사용 수준이 경험동기, 소통동기, 중독동기에 의한 인터넷 사용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실업계 고등학생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일, 과제물을 편리하게 처리하거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문제행동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문제행동(F=15.117,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신체적, 학교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위험 사용자군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보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학교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험 사용자군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보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일반 사용자군보다 신체적, 가족영역,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인터넷 중독	.794	15.117	8.000	988.000	.000

<표 5>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N=500)

문제행동	신체적 문제행동		학교영역 문제행동		가족영역 문제행동		사회영역 문제행동	
	M	SD	M	SD	M	SD	M	SD
고위험 사용자군(17)	3.97 ^a	.60	2.55 ^a	.82	3.48 ^a	.70	2.92 ^a	.6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82)	3.22 ^b	.80	2.04 ^b	.75	2.64 ^b	.86	2.25 ^b	.63
일반 사용자군(401)	2.60 ^c	.78	1.70 ^b	.58	2.11 ^c	.76	1.78 ^c	.58
F값	51.511***		21.885***		37.169***		61.077***	

***p<.001

※ a, b, c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내성현상과 금단현상으로 인해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점점 더 오래 인터넷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속한 청소년보다 시력이 점차 약화되고, 어깨가 자주 결리며, 두통과 피로를 자주 느끼는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Young, 1998)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영역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문정혜, 2000; 양희정, 2001), 이는 가족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의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가족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영역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인터넷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함으로써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고 지각을 자주 하며 수업시간 중에는 대부분 졸거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가 더 많고(문정혜, 2000; 박성준, 2002), 이것은 또 다시 학업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학업부진을 일으켜 학교생활 전반에 낮은 참여도를 나타내는 원인이 되므로 결국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이태인, 1995)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영역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친구들과의 약속에 늦거나 잊어버리는 등 실제생활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됨으로써 또래간의 불신과 마찰이 증가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다른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PC방이나 인터넷 상에서 만나는 사람 이외 다른 사람과 대화할 기회 또한 점차 줄어들게 되는 등과 같은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김한표, 2003; 양희정, 2001)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

본 연구문제의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한 가족체계유형 척도의 점수로 III.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에 따라 본 연구대상자들을 분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본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한 가족응집성 척도의 점수에 따라 '유리'집단, '속박'집단, '연결'집단으로, 가족적응성 척도의 점수에 따라 '혼돈'집단, '경직'집단, '융통'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교차하여 (<그림 1>에 제시) 본 연구대상자들 중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중간에 위치하는 집단을 균형가족(N=301), 어느 한 차원만이 중간에 위치하는 집단을 중간가족(N=133),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극단에 위치하는 집단을 극단가족(N=66)으로 분류하였다.

1)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 동기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인터넷 사용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F=4.077, p<.001)는 통계적

<표 6>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체계유형	.938	4.007	8.000	988.000	.000

<표 7>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의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N=500)

가족체계유형	사용동기	소통동기		정보동기		경험동기		중독동기	
		M	SD	M	SD	M	SD	M	SD
극단가족(66)		2.81	.87	3.10	.72	2.62a	.96	2.48a	.77
중간가족(133)		2.92	.79	3.20	.79	2.26b	.83	2.24b	.73
균형가족(301)		2.72	.76	3.07	.78	2.17b	.86	2.04b	.67
F값		3.114*		1.382		6.965**		12.139***	

*p<.05, **p<.01, ***p<.001

※ a, b, c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8>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 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가족체계유형	.856	13.008	8.000	988.000	.000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의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경험동기와 중독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은 중간가족과 균형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인터넷 사용동기 중에서 경험동기와 중독동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경험동기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극단가족에 속한 청소년들이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고(박선정, 2004), 충동적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민오, 2001; 이계원, 2001)는 선행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수 있다. 현실과는 다른 색다른 자극과 스틸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재미와 자유로움, 즐거움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더욱 인터넷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중독동기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훈육방법에 일관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족구성원이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거나 독립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극단가족 내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심리적 안녕과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원만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갖기 힘들다(이경희, 2004; 이천수, 1996)는 극단가족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기 때문에 이를 잊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원하는 정보를 찾으며, 스트레스와 현실의 괴로움을 회피하고 잊으려고 하는 등 다른 집단의 학생들보다 중독동기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문제행동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문제행동(F=13.00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교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 문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은 중간가족과 균형가족

<표 9>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N=500)

가족체계유형	문제행동		신체적 문제행동		학교영역 문제행동		가족영역 문제행동		사회영역 문제행동	
	M	SD	M	SD	M	SD	M	SD	M	SD
극단가족(66)	3.20a	.83	2.12a	.76	2.89a	.91	2.30a	.69		
중간가족(133)	2.87b	.81	1.85b	.65	2.42b	.79	2.00b	.63		
균형가족(301)	2.59c	.82	1.68b	.60	2.02c	.73	1.77c	.59		
F값	16.647***		13.861***		38.797***		22.207***			

***p<.001

※ a, b, c는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학교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고,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은 중간가족과 균형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중간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은 균형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신체적, 가족영역,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신체적 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관계에서 갈등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상의 변화가 크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많이 경험하며(김선로, 2003), 우울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학적, 공격적 행동을 하거나 신체적 문제를 많이 나타낸다(Chiles et al., 1980)는 선행연구결과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가족에게서 사랑, 애정, 관심을 받기보다 거부, 배척, 무관심 아니면 그 반대로 과잉보호, 지나친 기대와 간섭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자주 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경험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패턴이 변화함으로써 피로를 자주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건강이 악화되는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가족영역, 학교영역에서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친밀한 동시에 개인의 자주성과 개성,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균형가족에서 생활하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 하고, 학업문제도 적게 일으키는(손광훈, 2002; Hoffman, 1987)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모와의 애착이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개인적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극단가족의 실업계 고등학생은 부모님에게 자주 거짓말을 하고, 가족구성원 간에 마찰을 일으키며,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등 가족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기(조귀연, 1997)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 및 과제를 소홀히 하고,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교사와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등

학교영역에서의 문제행동도 더 많이 나타낸다(지수경, 2001)는 연구결과로 본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단가족에 속한 실업계 고등학생일수록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사려가 깊다(김인희, 1993)는 연구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마찰이 잦고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은 균형가족에 속한 청소년보다 긍정적 자아개념이 낮고(손미라, 1989),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 낮다(김미혜, 2003)는 연구결과들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에 속한 청소년들보다 소통동기, 경험동기, 중독동기에 의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정보동기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보동기에 의한 인터넷 사용 수준이 소통동기, 경험동기, 중독동기에 의한 사용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신체적, 학교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한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속한 청소년들보다

신체적, 학교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일반 사용자군에 속한 청소년들보다 소통동기와 경험동기, 중독동기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영역 전반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동기로 인한 인터넷 사용 이외에는 청소년이 소통동기나 경험동기, 그리고 중독동기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터넷 중독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이 인터넷 사용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예방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경험동기, 중독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단가족에 속한 청소년은 중간가족과 균형가족에 속한 청소년보다 경험동기, 중독동기에 의해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신체적, 학교영역, 가족영역,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극단가족에 속한 청소년은 중간가족, 균형가족에 속한 청소년보다, 중간가족에 속한 청소년은 균형가족에 속한 청소년보다 신체적, 가족영역,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극단가족에 속한 청소년이 중간가족, 균형가족에 속한 청소년보다 학교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 극단가족에 속한 청소년이 중간가족, 균형가족에 속한 청소년들보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스킬을 즐기려 하는 경험동기와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에 집착하는 중독동기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신체적, 가족영역, 학교영역, 사회영역에서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극단가족의 청소년인 경우 일상생활영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가족체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극단가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극단가족에 속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 아닌 현실에서 성취감을 얻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칭찬을 자주 해 주며,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자녀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이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균형적인 가족체계가 유지·형성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모두가 협조·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동기와 문제행동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체계가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동기로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고, 이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에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터넷 중독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논의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 중독 수준이 동일한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들 가정의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인터넷 사용동기와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족체계유형의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져서 최근에는 초등학교생뿐만 아니라 학령기 이전의 아동들도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접수일 : 2007년 07월 13일
- 심사일 : 2007년 0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0월 04일

【참 고 문 헌】

강병구(2004).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성에(199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응신(2006). 인터넷 사용 동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정화·전명기(1995). 청소년 PC통신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미혜(2003). 초등학교 아동의 PC방 이용실태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로(2003). 가족관계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1998). 가족사정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은(2004). 인터넷 중독 관련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범(2000).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 연구 : 자존감, 우울, 외로움,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1). 여성의 인터넷 사용동기, 만족, 대인 커뮤니케이션 간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표(2003).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생활태도 변화와의 상관관계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전 전교조(2006). 인터넷/게임 및 휴대폰 중독 실태조사. 대전 전교조.
- 도수경(1991).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소녀간의 가족관계 연구: circumplex model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라민오(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아(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정혜(2000).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정(2004).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과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준(2002). 공업계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와 수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 탐색. 여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대(2000). 중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학교요인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명희(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사회적 지지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광훈(2002).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학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154, 136-169.
- 손미라(1989). Circumplex Model에 의한 가족체계 유형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성원(2002). 중학생 인터넷 중독의 실태조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승연경(200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 및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석(2000).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 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정(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기준(2000). 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인터넷 중독증 인식 조사.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 엄명용(1997). 청소년 가출 및 가족 기능과 가족 체계 유형과의 상호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 133-177.
- 오희경(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실태 및 대책.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4). 동거부모형태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적 안녕: 부산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애(2001).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요인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7(1), 60-87.
- 이시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서울: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 건강연구소.
- 이정윤(2005). 인터넷중독 하위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청소년학 연구, 12(1), 43-61.
- 이정화(2001). 청소년의 컴퓨터게임 중독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2002).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적 사용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충동성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천숙(1996).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인(1995).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

- 사업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1). 청소년들의 사이버공간 이용에 있어서 창조적 행위와 일탈적 행위에 대한 심층 인터뷰. **청소년문제 연구세미나 자료집**, 67-110.
- 이희경(2003). 청소년의 게임 이용요인과 개인·사회적 요인이 게임몰입과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355-380.
- 임은미(1999). 청소년 사이버 문화의 이해와 지도방안. 청소년 사이버문화. 한국청소년상담원.
- 임혜숙(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 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7).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Beavers의 system 모델의 유용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201-212.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2006). 2006국가정보화백서.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2).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척도(K-척도) 개발보고서. 정보통신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정영숙(2000). 중학생의 컴퓨터게임과 공격성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귀연(1997).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분석적 연구: 대전광역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양희(2004).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게임이용동기가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경옥(2001). 역기능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애(2004).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호·김영석·정범모·임희섭·원우현·이정복·송자·김지홍(1995). **정보화 사회와 우리**. 서울: 한림과학원 총서.
- 최향순(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대응방안.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미경(2005).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과 문제행동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2005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IDC(2006). 2006년-2010년 한국 IT서비스 시장 분석 및 전망보고서.
- 황정미(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6(5)*, 427-453.
- Barber, B. L. & Lyons, J. M.(1994).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remarried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4)*, 421-438.
- Brenner, V.(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 *80*, 879-882.
- Chiles, J. A., Miller, M. L. & Cow, G. B.(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Egger, O.(1996). *Internet behaviour and addiction*. Unpublished thesis,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Zurich.
-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 Hoffman, J. A. & Weiss, B.(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4(2)*, 54-72.
- Neill, A. S.(1990). 김인희 역(1993). **문제의 가정**. 서울: 양서원.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Papacharissi, Z. & Rubin, A. M.(2000). Predictors of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2)*, 175-196.
- Scherer, K. & Bost, J.(1997). *Internet use pattern: Is there internet dependency on campus?*.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August.
-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237-244.

_____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Y.: John Wiley & Sons, Inc..

_____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